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 _<http://www.daegujobo.or.kr>



† 오늘의 전례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마태 26,14-27,66 참조)

예수님의 수난을 목격한 이들 중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몇 안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특히 사제들과 학자들, 정치가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읽는 마태오의 수난기에서는 오직 한 사람, 외국 군인인 로마인 백부장만이 지금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줄을 깨닫습니다. 인간 세상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표지는 이웃을 위해 어려움과 불편을 참아 견디는 것, 곧 십자가입니다.

두류성당 제대 장식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입당식복음 마태 21,1-11 **제1독서** 이사 50,4-7 **제2독서** 필리 2,6-11 **수난복음** 마태 26,14-27,66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어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화두

이창수 야고보 신부 | 황금본당 주임

교회는 오늘부터 한 주간을 성주간(聖週間)이라 부르고, 일 년 중 가장 거룩하게 이 날들을 보내기를 촉구하고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성삼일(聖三日)을 포함한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 그 결과와 열매가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구원 역사의 절정이며, 정점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2독서의 ‘예수님의 겹손’을 통해, 하느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 제1독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는 왜 십자가의 죽음이 꼭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에서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마지막 가르침(화두)으로 주십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며,

예수님의 아버지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명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극치를 이루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당신은 하느님의 자비이시며, 다른 한편 지엄하신 그분의 정의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꺾어 버리시는 당신의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요, 인류구원의 징표입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아름다움”(프란치스코 교황)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황님의 권고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응답**하고, 다른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선익을 **추구**하는”(교황권고 『복음의 기쁨』 39항) 거룩한 성주간을 보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확신합니다. **말씀**

성지주일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성지주일(聖枝主日)의 ‘성지’는 거룩한 가지, 즉 오늘 성수로 축복하여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 사용하는 나뭇가지를 뜻합니다. 원래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종려 가지를 써야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종려나무가 잘 자라지 않으므로 대신 측백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입당하는 사제는 수난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며,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노래하는 회중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나타냅니다. 이 가지는 집에 가지고 가서 십자가상에 장식하는데, 내년 사순절이 다가오면 다시 성당에 가지고 와서 태웁니다. 이 가지를 태워 재의 수요일에 이마에 얹을 재를 만듭니다.

부활을 향한 여정, 성주간

문화홍보실

오늘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부활 대축일 전 한 주간을 말합니다. 성주간의 각 날에는 고유한 전례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파스카 사건을 재현하는데 전례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지주일의 말씀의 전례에서는 예수님의 수난사가 봉독되며, 성월요일에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 성화요일은 제자들의 배반 예고, 성수요일에는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지를 예고합니다.

성주간 중 성목요일부터 부활 대축일 저녁 기도까지는 성삼일, 혹은 파스카 3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파스카 3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일년 중 가장 거룩하고 뜻 깊은 기간입니다.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며 성체성사와 성품성사를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오전에는 주교좌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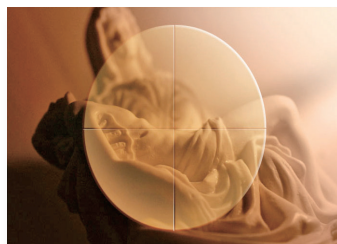


에서 교구장 대주교님께서 교구 사제단과 함께 성유축성미사를 봉헌하십니다. 저녁에는 주님 만찬 미사가 봉헌되는데 미사 중에 사제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신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식인 세족례가 거행되고, 영성체 후에는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겨 성금

요일 수난예절 거행 전까지 밤새워 성체조배를 하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대포는 벗겨내며 십자가상도 천으로 가리거나 치웁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날은 1년 중 유일하게 미사를 드리지 않은 날이며 비



상세례와 병자성사를 제외한 다른 성사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금육과 금식을 지키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데 오후 3시나 저녁에 성당에 모여 말씀의 전례, 십자가 경배, 영성체로 된 수난예절만 거행합니다.

성토요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묵상하는 이날 제대포는 벗겨



둔 채로 두고 낮 동안에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날 늦은 밤에 장엄한 부활성이 전례를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파스카 신비를 경축합니다. 부활 성야 미사는 빛의 예식, 말씀의 전례, 세례 예식,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 먹는 사람들

박복조 사비나 | 범어본당

인성회의 집 뒷골목은 길었다. 짐승의 긴 창자같이 끝없이 꾸불거리며 이어지던 길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직 해뜨기 전 새벽 여명에 검은 조상(彫像)처럼 웅크린 사람들. 돌 위에 신문지를 놓고 앉은 사람들이 징검다리 같았다. 놀라운 일이었다. 하루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첫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었다. 몇 끼를 거르고 이 한 끼를 위한 거룩한 기도, 굶주림이 지친 자리였다. 긴 줄은 굽은 길을 돌고 돌아 주린 창자는 가늘고 멀었다. 11월 그믐 찬바람이 매우 쌀쌀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 선발대는 봉사자랍시고 우리끼리만 매일 파스한 아침밥을 해 먹은 것이 미안하고 죄송했다. 그 곳 무료급식소의 총책임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저 사람들까지 아침밥을 해서 먹이면 아수라장이 될 것이 뻔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침밥을 먹는 것이 그리 편치 않았다.

한 달 동안 우리 성당 전 교우들의 무료급식 봉사가 진행되었다. 드럼통에 국 끓이고 밥하고 돼지머리를 장만하고 자잘한 생선 수 십 짝을 손질하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다. 먹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여기 와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협동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다. 어물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생선을, 요식업소에서는 반찬 등 소머리, 족발 어느 한 날 도움이 없는 때가 없었다. 드디어 낮 12시 정각이 되면 봉사자의 두 팔이 번쩍 들리고 급식이 시작된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밥 손님을 맞으면 백 원의 밥값을 내고 입장을 한다. 식판에 밥이며 국, 반찬을 풍성히 차린다. 식사테이블 중간과 갯길에는 국 당번은 추가국통을, 밥 당번은 추가 밥통을 들고 대기해 서 있다. 더 달라고 하면 즉시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이다. 물밀

듯 들어와 식탁은 일순에 메워지고 기도를 올린 뒤 식사에 들어간다.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대체로 남루한 행색이다. 허겁지겁 태산 같은 밥을 몇 번씩이나 먹는 사람들을 보며 눈물겹기도 했다. 아무도 말 한마디 없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의 역사가 쓰이고 식사가 끝나면 서로 목례를 하고 떠난다. 그 뿐 인줄 알았지만 남은 밥을 가져가는 밥줄이 또 선다. 제각각 비닐봉지를 들고 포만 후의 곧 다가올 시장기를 달랠 줄인 것이다. 저 줄이 끝나면 또 길고 긴 내일의 밥줄이 새벽 차가운 골목에 꿈을 거리겠지. 참 길고도 비릿한 줄이었다.

이렇게 하루가 기울면 우리 봉사자들은 설거지하고 내일의 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다듬고 장만하기에 바쁘다. 먹고 산다는 것의 절절함이 선연히 전개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이다. 밥 먹는 생명들이 얹혀 사랑하고 있는 거기 그 현장, 사람 냄새가 물씬 풍겼다. 만약 우리가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느님이 입을 생략하고 먹는 것을 없앴다면 아마 이런 가슴 아픈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해 보았다. 굶주리는 그들이 지고 가는 가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 곳곳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세계 기아 인구는 전 세계인구의 15%에 달한다고 한다. 다이어트를 하며 밥을 버리는가 하면, 음식점에서는 많은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도 그 검은 새벽 찬바람에 웅크리고 앉아 한 끼 점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눈에 선하다. 파스한 아침밥 한 그릇 같이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다. 점심밥 한 끼 만큼의 선행이 가슴을 짓누른다. 주님은 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성호 굿는 선수들

지금은 ‘축구 황제’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한때 이 별칭이 딱 한 사람에게만 쓰였었습니다. 바로 펠레 선수인데, 아주 열심한 교우입니다. 펠레는 자서전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는 모르겠지만 황태자쯤은 될 호나우디뉴 선수도 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한다고 합니다. 신자 비율이 유별나게 높은 스포츠는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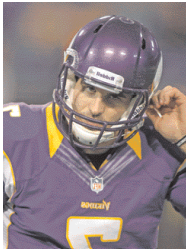


호나우디뉴



베리 본즈

구인데, 특히 전통적으로 타자들 가운데 신자가 많습니다. 베이브 루스와 마이크 피아자가 신자였고, 세미 소사와 마크 맥과이어도 열심한 신자였습니다. 마크 맥과이어의 시즌 70홈런 기록을



브렛 파브르



로저 페더러

깬 베리 본즈도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오래 유지했던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존 맥클렌로(미국)도 신자였습니다. 통산 7만 야드 패스와 500회 터치다운의 미식축구 전설 브렛 파브르는 승리 세리머니로 성모송을 바치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매년 엄청난 재산을 병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필로**

금주의 성인

4월 13일	성 아가토니카(순교자, 250년경), 성 우르소(주교, 라벤나, 396년) 성 헤르메네빌도(왕자, 순교자, 585년), 성 카르포(주교, 순교자, 고르두스, 250년경)
4월 14일	성녀 돔니나(동정순교자, 테르니), 성 란비노(수도원장, 1120년) 성녀 리드비나(동정녀, 쉬단, 1380~1433년), 성 베네젠티(평신도, 아비뇽, 1184년)
4월 15일	성 다미아노(신부, 설립자, 몰로카이, 1840~1899년), 성 루아다노(수도원장, 로트라, 584년경) 성 마로(순교자, 99년), 성녀 바실리사(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65년경)
4월 16일	성 드로고(은수자, 세부르, 1105~1186년), 성녀 베르나뎃타(수녀, 루르드, 1844~1879년) 성녀 엔크라티스(동정순교자, 사라고사, 304년), 성 투리비오(주교, 아스투리아스, 450년경) 성 베네딕토 요셉 라브르(평신도, 증거자, 1748~1783년)
4월 17일	성 돈난(수도승, 순교자, 617년경), 성 아니체토(교황, 순교자, 166년경) 성 에벨하르도(수도원장, 마르탈, 1178년), 성 스테파노 하르딩(수도원장, 1134년) 성 로베르토(설립자, 수도원장, 세즈디외, 1067년)
4월 18일	성 갈디노(대주교, 추기경, 밀라노, 1100~1176년), 성 라세리안(수도승, 주교, 라이글린, 639년) 성녀 아지아(과부, 몽스, 714년), 성 아폴로니오(원로원 의원, 순교자, 호교론자, 로마, 185년경) 성녀 안티아(과부, 순교자, 117~138년)
4월 19일	성 레오 9세(교황, 1002~1054년), 성 알페지오(주교, 순교자, 켄터베리, 954~1012년) 성 우르스마로(수도원장, 로베스, 713년), 성 티몬(부제, 순교자, 1세기)



서영민(알렉산델)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서영민(알렉산델, 향년 48세) 신부님께서 지난 4월 2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4월 4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 서영민 알렉산델 신부 장례미사



4월 2일(수) 선종하신 서영민(알렉산델) 신부님의 장례미사가 4월 4일(금) 오전 10시 계산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 서하기 루카 신부 해군 군종병과장 취임 축하미사



3월 27일(목) 해군 군종병과장으로 임명된 서하기(루카) 신부님의 취임 축하미사가 4월 3일(목) 오후 7시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삼위일체성당에서 군종교구장 유수일(F.하비에르)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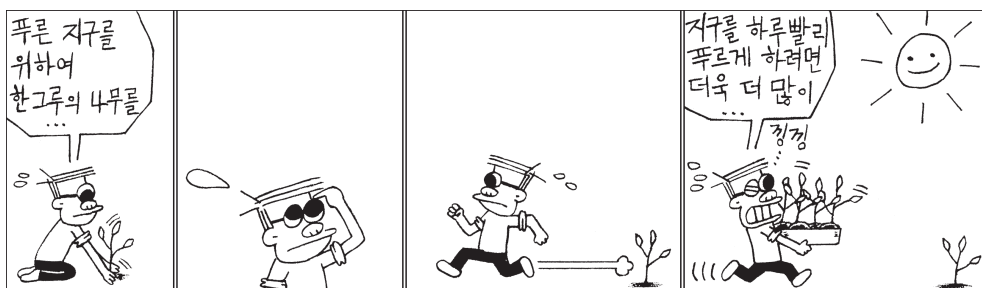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지구를 푸르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30 범어성당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00 월성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4월 14일(월) 20:00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테클라 모임

일시: 4.14(월) 19:00

장소: 바오로팔서원(동성로)

주제: 그대 지금 어디 있나요?

대상: 미혼여성, 문의: (010)2503-5185

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20(매달 셋째 일 14:00), 수원본원

문의: (010)8833-8107

예수마음선교회 / 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4.27(일) 11:00~16:00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선교회, (010)8868-0271

선교수녀회, (010)6471-6932

성령봉사회 피정 (054-954-0951)

희망기도 피정 강사: 최봉도 신부

기간: 4.6~5.4(매주 일) 13:30~17:00

1박 2일 피정 강사: 연혜정 외

기간: 4.27(토) 14:00~28(일) 17:00

성령세미나: 5.9(금) 13:00~11(일) 17:00

청년 도보 성지 순례 피정

기간: 5.3(토) 11:00~5(월) 14:00

코스: 대전교구 내포지역(솔피~해미)

대상: 33세미만 미혼여성(선착순, 4만원)

문의: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010)2570-0939

성소의 길 체험 피정

기간: 5.3(토) 20:00~5(월) 14:00

대상: 미혼 여성(수도 성소)

회비: 1인 3만 원

주최: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신청: (010)2649-2045

성소자 파스카 성삼일 피정

기간: 4.17(목) 17:00~2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상원관)

대상: 고등학생~만 32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교육 | 모집

오순절평화의마를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차정숙 레지나, (010)9510-6962

예수마음기도 5주 과정

기간: 4.25~5.23(매주 금) 10:00~16:00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문의: 그리스도의교육수녀원,

(010)2505-9545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Fiat젊은이 기도 모임

기간: 4.26(토)~27(일)

대상: 34세 미만 미혼 남녀 / 2만 원

문의: (010)8920-9423

가톨릭신문 코루츠 성지 순례

기간: 5.26~6.6 (11박 12일)

장소: 이탈리아,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가격: 내측 518만 원, 발코니 558만 원

이용: 핀란드 항공

문의: 428-5004

<http://www.cttour.org>

이스라엘 성지순례

기간: 7.26(토)~8.3(일)

주관: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http://www.terrasanta.kr>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이전 확장**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053)651-2233

비염·축농증

코 질환 집중 치료

대구수성점 **코비한의원**

대표원장 이 판 제(투가)

☎053-753-9795 수성구청역 4번 출구 앞

안마의자 렌탈, 특가판매

안마의자, 승마운동기

로하스테크안마의자대구점

오 해 수(미카엘)

010-8956-9351 / 354-9020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가쿠백화점 1층
(무료체험실운영)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서울 사무실 홍대 앞

이 원 교(요안나) | 20년 경력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동,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형(요세파나)
이 범 수(대견안드레아)

☎(053)426-6000 (중구 보건소 옆)

미소나리 misonari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정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안 리 네 뜨

T.427-8070

동성로 금곡삼계탕 맞은편

안경 트렌드의 중심

원장 옥정희 (프란체스카)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대표전화 1577-2400

무료전화 080-053-1000

아곡수(아네스) 010-5048-7739

행사 | 모임

제4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

일시: 4.27(일) 15:00

장소: 계산성당

미사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문의: 대구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253-1313

4월 가나강좌

일시: 4.20(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대구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 대음악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 협연

일시: 4.26(토) 19:30

장소: 수성아트피아 용지홀(입장료 무료)

문의: 850-3803 / (010)4044-2369

교육 | 모집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4.30(수) 14:00~16:30, 접수: 13: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1만 원

주제: 부모 코칭 ※전화 신청 가능

강사: 이선혜(대구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서로 돕는 청소년 동아리 모집

대상: 중·고등학생

분야: 문학, 영상, 연극, 봉사, 밴드

축구, 바리스타, 비즈공예, 틴스타 등

신청: www.jesusclub.or.kr 자유게시판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37

소람상담소 자원봉사 Helper 모집

자격: 상담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kim-sinbu@hanmail.net

문의: 소람상담소, 250-3113

지성인을 위한 토요일인양특강

일시: 4.26(토) 10:00~12: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신앙과 이성 / 5천 원

강사: 이경수(라파엘) 신부

문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6

관덕정 주관 5월 성지순례

일자: 5.18(일), 대전교구 해미성지

신청: 4.16(수)부터 선착순

회비: 3만 원(중식 포함)

문의: 관덕정, 254-0151

바오로 모래놀이 치료 상담센터 안내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본원

대상: 심리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분

강사: 박지선(예노파) 수녀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문의: (010)4600-2433 / 659-3333

예수성심 교육관 프로그램 안내

5.3(토)~4(일) 여성: 댄스음악테라피

5.24(토)~25(일) 모녀: 소통과 사랑

5.18(일) 청년: 해피엠 pm.2~5

문의: (010)9056-9005

채용 | 안내

상인성당 여사무원 채용

마감: 4.25(금)까지

자격: 컴퓨터활용가능자(20~40대 초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문의: 639-1900

(주)매일상조 영업사원 채용

직접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매일상조
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427-4400(면접 후 채용)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2014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20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7~9

교구청 휴무

교구청은 4월 21일(월) 쉽니다.

에이 통증의학과
비수술적 치료전문

- 목 / 허리 디스크 / 협착증
- 이명 / 어지럼증 / 두통
- 오십견 / 어깨통증 · 무릎 관절통

통증의학전문/원장 이준석(이나시오)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외래교수 -
TEL : (053)742-8275
범어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1번 출구 앞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2014. 5. 15
개교100주년
기념식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011-818-0818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 우체국 옆, 교대역 3번 출구
권중문(파비올라)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소화기 · 내시경 원장/전문의 김형성(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유방 · 갑상선 전문 여의사
마리아유외과

Maria Breast Clinic

대표원장 김 경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함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2484 익스프레스

칠 곡 313-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익기(바오로) 011-514-3855

일본 성지순례

나가사키, 이라도 4월 24일 (4일)
유유인, 오이파 5월 28일 (5일)
6월 04일 (3일)

"영국어학연수 및 유럽문화탐방"
여름캠프 참가자 모집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프렐레(유스티노)